

150909 디모데전서 강해 두번째 1:1-20

1-2 문안 인사

‘ 사도권을 밝히고 있다

‘ 복음으로서 양육하고 교훈한 영적 아들로써 칭하고 있다. - 바울이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자 한다- 정감 있는 표현

(아데미 신전 중심지, 이단이 창궐하던,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디모데)

예) 고전 4:15 단순히 지식만 전해 주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.

3-11 이단에 대한 경계

‘ 바로 본론 시작,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 교훈 곧 이단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에 힘쓸 것을 강조

- 초대 교회 당시 중차대한 현안이었다.

‘ 초대교회의 심대한 도전 - 교회의 분열과 미비된 조직 정비

점증해 가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제국의 박해, 교묘한 거짓 교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의 외부적 도전

‘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불신실한 자들의 침투를 우너천 봉쇄할 것은 물론 그들과의 불필요한 변론을 근절(3-7)

‘ 이단 사설의 허망한 실례로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율법 준수가 필수 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모순에 대해 율법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계시가 아니라 정죄의 기준으로 다만 악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력

12-20 바울의 신앙 간증과 디모데에 대한 복음의 진리 수호 권면

‘ 자신이 과거 예수를 핍박 하던 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케 된 이후에는
도리어 복음 증거를 위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자가 되었음을 신앙 간증을(12-17)
통해 영적 아버지며 목회 선배로서의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소개 - 교회의 지도자
된 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때에 만이 진정 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
올바로 가르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.

‘ 이단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할 때
자신이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부탁한 사실을 상기 시키고 있다. - 그것은 바른
지식과 이단에 대해 힘써 싸우겠다는 강한 영적의지를 갖는 것이다. 18

‘ 그리고 당시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로서 후매네오와 알렉산더가 바울에 의해 출교
당했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19-20